

Samhwa &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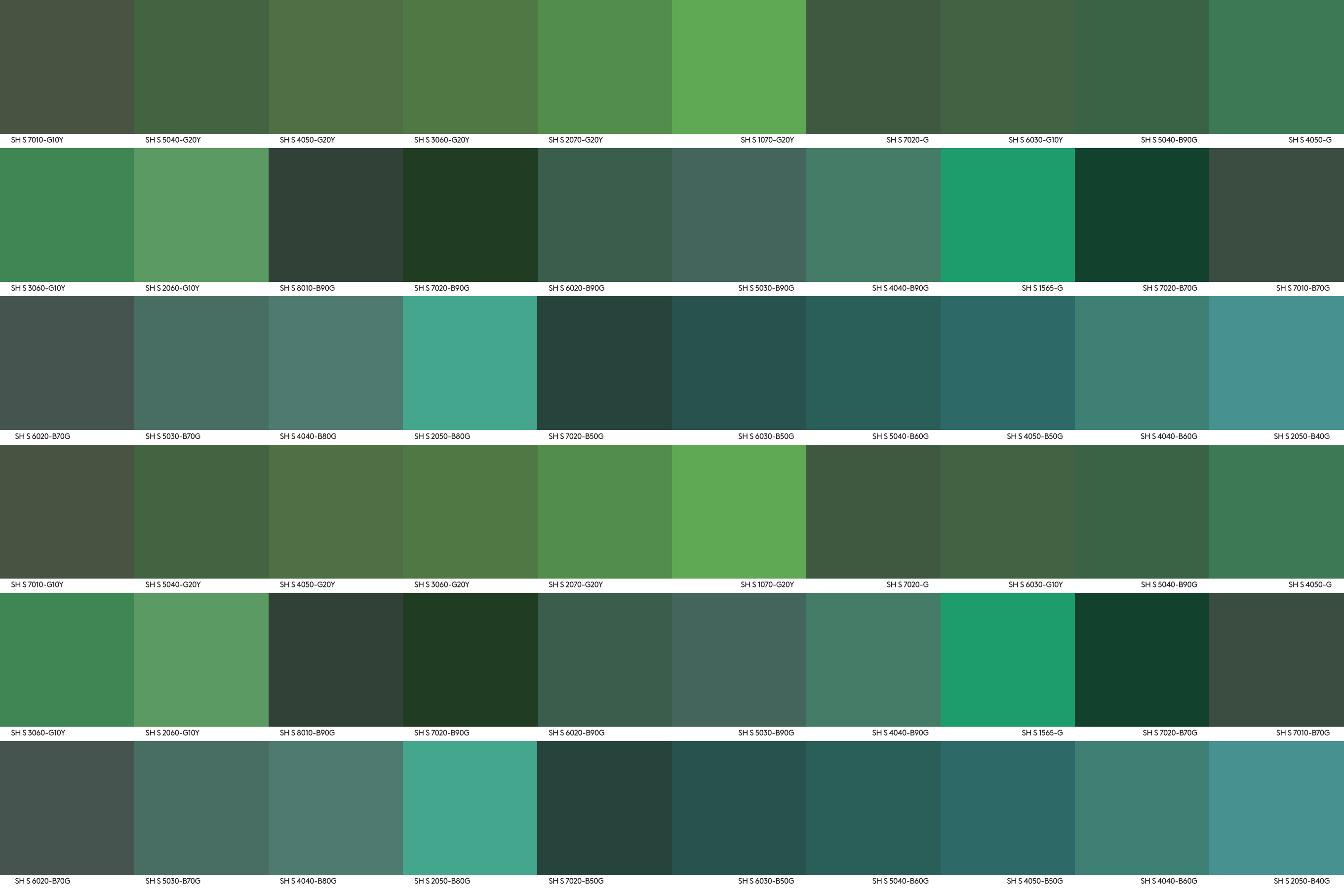
35

2019
AUTUMN

PAINT
MAGAZINE

FURNITURE &
DECO





SH S 7010-G10Y SH S 5040-G20Y SH S 4050-G20Y SH S 3060-G20Y SH S 2070-G20Y SH S 1070-G20Y SH S 7020-G SH S 6030-G10Y SH S 5040-B90G SH S 4050-G

SH S 3060-G10Y SH S 2060-G10Y SH S 8010-B90G SH S 7020-B90G SH S 6020-B90G SH S 5030-B90G SH S 4040-B90G SH S 1565-G SH S 7020-B70G SH S 7010-B70G

SH S 6020-B70G SH S 5030-B70G SH S 4040-B80G SH S 2050-B80G SH S 7020-B50G SH S 6030-B50G SH S 5040-B60G SH S 4050-B50G SH S 4040-B60G SH S 2050-B40G

SH S 7010-G10Y SH S 5040-G20Y SH S 4050-G20Y SH S 3060-G20Y SH S 2070-G20Y SH S 1070-G20Y SH S 7020-G SH S 6030-G10Y SH S 5040-B90G SH S 4050-G

SH S 3060-G10Y SH S 2060-G10Y SH S 8010-B90G SH S 7020-B90G SH S 6020-B90G SH S 5030-B90G SH S 4040-B90G SH S 1565-G SH S 7020-B70G SH S 7010-B70G

SH S 6020-B70G SH S 5030-B70G SH S 4040-B80G SH S 2050-B80G SH S 7020-B50G SH S 6030-B50G SH S 5040-B60G SH S 4050-B50G SH S 4040-B60G SH S 2050-B40G

08 Opening Column
MELT YOUR UNIQUENESS
FURNITURE & DECO

10 Trend Column
일상의 행복을 키우는
비움의 미학, 미니멀리즘

14 Place
조화 속에서 찾은 평화
뮤지엄 산

20 Trend Discovery
HAY



26 Painting Styling
FURNITURE & DECO
페인팅을 위한 TIP

32 How to Color
FURNITURE & DECO
COLORING IDEA

34 People
적당함을 즐기는 삶
하이브로우 타운



38 How to Paint
FURNITURE & DECO
페인팅을 위한 Q & A

42 Product
WOOD PAINT

48 Hot Issue
두 #컬러맛집 콜라보
삼화페인트X시현하다
나만의 #인생컬러 찾기 이벤트



52 Color Magazine



60 Friends
뒤도 옆도 없이 달려온 한길
서울 '대흥페인트' 박성주 대표

64 Interview
나를 태우고 다시 채운다
철인3종경기에 도전하는
이세훈 선임연구원

66 Focus I
삼화페인트
팻서울&카하엑스포 2019 참가

68 Focus II
전시회로 만나는 'LIFE CANVAS'

70 Focus III
'EASY-SALES'와 함께
매출 신장도 'EASY' 하게!

72 News



76 Event

삼화엔피플 2019년 가을호 정보간행물(계간) 종로 바00176 발행일 2019년 11월 22일 발행인 오진수 편집인 김향란 발행처 삼화페인트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8 (묘동 125번지) 문의 1544-5357 기획·디자인 코비즈 02-2272-1400

* 본 정보간행물은 인쇄용이므로 실제 페인트 컬러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컬러는 삼화페인트 색견본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삼화엔피플 사내기자단 광고디자인팀 김예슬 과장, 백승아 대리 마케팅팀 신영규 과장 컬러디자인팀 이미리 과장 연구지원팀 김필영 책임
재무팀 김현정 과장 SM2 네트워크 허현아 대리



빈 의자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빈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운 공간으로 남아 그대 잠시라도 머물러 새로운 희망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고 싶습니다. 최원정 시인



BOOK IS DECORATION

야구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캔버스를 즐겨 신으며, 신간 서적은 모조리 읽는 A씨의 리빙 룸이다. 이런 A가 책은 좋은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2019년 Samhwa & People은 우리 삶의 주요 공간인 'Home'을 메인 테마로 앞선 감각과 트렌디함이 살아 있는 페인트 라이프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봄호 Door를 시작으로, 여름호 Wall에 이어, 이번 가을호는 Furniture & Deco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겨울호 U & Pet도 기대해주세요!

DOOR

WALL

FURNITURE & DECO

U & PET

MELT YOUR UNIQUENESS FURNITURE & DECO

이번 <Samhwa & People>의 테마는 '나만의 유니크함: Furniture & Deco'입니다. 가구는 그 자체로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의자, 같은 침대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와 행동에 따라 남다른 의미가 녹아들죠. 그러면서 나만의 특별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구와 소품에 깃든 특별한 이야기를 가을호에서 나누어 봐요.

지영 씨, 아기 침대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다

둘째 출산을 한 달 앞둔 지영 씨 집에 배달이 왔습니다. 배달 온 물건은 다름 아닌 아기침대인데요, 4년 전 첫째를 낳고 잘 쓰다가 임신한 친구에게 물려주었던 그 침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사실 지영 씨도 아이 둘 있는 사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침대를 거쳐 간 아기가 벌써 다섯. 여러 아기들의 배냇 내음이 배어있는 다정하고 따뜻한 침대를 보며, 지영 씨는 둘째 순산을 빌어봅니다. 이 침대에서 잠들고, 깨고, 웃고, 울며 무럭무럭 자란 아이들은 알까요? 자신들을 안전하고 포근하게 품어주며 미래의 희망을 길러준 침대의 마음요.

정욱 씨, 의자를 보며 학자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욱 씨의 연구실에는 아주 오래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 잘든 육중한 나무 의자는 존경하는 대학 은사님이 15년 넘게 쓰던 것으로, 정욱 씨의 기억에 교수님은 항상 이 의자와 함께였습니다. 수업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 이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레 의자와 함께 나이 들어가던 은사님의 모습이 생생하답니다. 정년퇴임과 함께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은사님은 정욱 씨에게 의자를 물려주셨고, 교수가 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연구실에 의자를 갖다 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 한편에 놓인 이 의자는 말없이 정욱 씨를 지켜보며 좋은 학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더욱 북돋워 준답니다.

상혁 씨, 외할머니의 사랑을 신혼집에 간직하다

몇 달 전 결혼한 상혁 씨의 신혼집은 모든 것이 새것으로 반짝거립니다. 새 가구, 새 가전, 새 소품들. 그런데 딱 하나, 새것 일색인 물건과는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상혁 씨가 갖고 온 오래된 문갑인데요, 장인의 손길로 반짝반짝 빛났을 나전칠기 문갑은 장사하는 부모님 대신 어린 손자를 알뜰살뜰 돌봐주시던 외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문갑 속에는 늘 사탕이 가득했고, 상혁 씨에게 한 움큼씩 전해지곤 했지요. 빛이 바래고 귀퉁이가 낡았지만, 여전히 이 문갑은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던 외할머니의 마음이나 다름없답니다.

수진 씨, 오래된 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다

수진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골집을 정리하다 추억의 물건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짙은 수제 원목 책장은 바로 중학생이 된 수진 씨를 위해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세상에 딱 하나뿐인 책장이랍니다.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딸인 수진 씨는 자기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책상, 의자, 학용품 모두 언니 오빠 것을 빌려 써야 했지요. 그런 막내딸을 위해 아버지가 서툰 솜씨로 똑딱거리며 만들어주신 책장은 오랫동안 수진 씨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책장에 아이생각 수성 목재로 페인트를 새로 칠했고, 멋지게 탈바꿈한 책장은 이제 수진 씨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키우는 비움의 미학,

미니멀리즘

‘버리기’, ‘비우기’, ‘덜어내기’ 등의 키워드를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니멀 라이프 수납법’, ‘미니멀 라이프 정리 정돈’ 등의 문구를 단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시대다. 1900년대 초 미술에서 시작된 예술 사조인 미니멀리즘이 21세기 자본주의의 과잉 풍요와 만나 ‘비워서 행복해지자’는 미니멀 라이프로 확대되고 있다. 인테리어, 패션,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작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 보자.

예술의 최초 본질로 돌아가다

예술 사조로서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꾸밈과 표현을 최대한 제거하고,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즉자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예술의 본질적인 요소를 탐구하는 것이다. 러시아 화가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가 1913년 발표한 구성 작품에서 출발한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형태와 기하학적인 선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회화와 조각뿐 아니라 건축과 패션, 디자인, 음악 분야로도 확산됐다. 한국 미술의 미니멀리즘은 1970년대 중반에 등장했는데, 동양적인 정서와 결합해 '단색화'라는 새로운 유파를 낳았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단순한 본질'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에게 환영받으며 꾸준히 영역을 넓혀온 미니멀리즘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건 5~6년 전 '버리기 열풍'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생활 속 미니멀리즘 실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에도 단순하게 사는 삶이 폭발적으로 유행했고, 이후 거의 모든 생활 영역 앞에 미니멀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미니멀리즘 살림, 미니멀리즘 패션, 미니멀리즘 가구 등 지금 우리는 미니멀리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 속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삶, 즉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란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고, 버리고 비움으로써 물질의 풍족함이 아닌 마음의 풍요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른다.

언뜻 미니멀 라이프를 금욕주의나 반물질주의라 오해할 수 있는데, 미니멀 라이프는 극단적으로 욕망을 억누르거나 문명의 이기를 무조건 배척하는 사조가 아니다. 미니멀리스트 각자의 철학대로 필요와 불필요를 정의하고, 그 기준에 맞는 비움과 채움을 실천할 뿐, 누구에게도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냉장고 없이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화학성분을 최대한 배제해 샴푸를 쓰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도 있다. 어떤 미니멀리스트는 집에 가구를 거의 두지 않고, 매일 필요 없는 물건 하나씩 기부하기를 실천하는 미니멀리스트도 있다. 이렇듯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유행에 휩쓸리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을 세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실천을 통해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삶이다.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미니멀 라이프 실현을 위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본질은 집안에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겨둬 여백의 미를 살리고 여유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적당한 여백이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핵심이자 기본 조건 두 가지는 '잘 버리기'와 '잘 채우기'이다.

**미니멀 라이프란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고,
버리고 비움으로써
물질의 풍족함이 아닌
마음의 풍요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1단계인 잘 버리기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원칙이 도움될 수 있다. 한 번도 입지 않고 해를 넘긴 옷이나 6개월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이후에도 똑같이 방치될 확률이 높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처박아두었던 물건이나 추억이 없는 물건도 마찬가지로. 물건에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냈다면 2단계로 들어가 잘 채울 차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강조할 것만 강조하자. 잠과 휴식을 중시한다면 불필요한 가구 없이 편안한 침대와 좋은 침구로 침실을 꾸미고, 재택근무가 많다면 좋은 의자와 기능성 사무 가구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있던 가구에 새로운 컬러를 입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컬러의 노하우는 아래에서 배워보자.

색으로 완성하는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비우고 채운 뒤에는 수납의 마법을 활용해보자. 효율성 높은 수납 공간을 이용해 자잘한 물건들을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만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미니멀 라이프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 수납을 잘하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듯 느껴질 때, 여전히 집 안 전체의 분위기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통일성을 고민해보자. 집 안을 전체적으로 정돈하고 싶을 때는 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여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한두 가지 중심 색을 정해 벽과 가구, 바닥과 소품의 색을 비슷하게 맞추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를 이끌어오던 화이트, 블랙, 베이지에 이어 채도 낮은 그레이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레이는 차분, 깔끔, 정돈된 느낌을 주고 화이트, 블루, 블랙 어떤 색과도 잘 어울려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구현에 딱이다. 무채색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은은한 파스텔 색을 배합해 산뜻함을 더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로 차분하게 꾸민 공간에서, 여름의 번잡스러움을 벗고 고요하게 사색하며 다가올 가을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화 속에서 찾은 평화 뮤지엄 산

미니멀리즘적 공간이 추구하는 담백함은 모더니티의 편리이기도 하지만, 자연과의 교감, 여유와 휴식에도 곧잘 어울린다. '소통을 위한 단절(Disconnect to Connect)', 뮤지엄 산이 바라는 공간의 철학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안도 다다오는 건축가가 되기 전 권투 선수와 트럭 운전사로 보냈다. 어느 날 유명 건축가 르 코르뷔에의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건축가가 되기로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 대신 세계를 여행하며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다. 세계적 건축가치고 특이한 그의 이력을 보면, '그의 세계관인 특유의 비범함과 직감, 과감함과 열정, 뚜렷한 가치관과 시각'이 이해가 간다.

그는 독특한 작품들을 인정받아, 1995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기도 했으며 그는 국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일본인 건축가이기도 하다. 대표작은 집이 편해야 한다는 상식을 깨버린 '스미요시 나가야', 그리고 그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물과 빛으로 아이디어를 낸 '물의 교회', '빛의 교회' 등이 있다.

안도 다다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는 그 자체로 미니멀리즘이다. 건축의 구조물이 곧장 외관이 되어 소재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마감법으로 미니멀리즘의 단순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단순히 노출 콘크리트로만 공간을 구성한다면 텅 빈 고적감이 내부를 채우는 차가운 공간이 되기 십상이다. 이 노출 콘크리트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다른 비법으로 자신의 공간을 설계한다.

그가 만드는 공간에는 빛으로 만든 공간적 표기와 물의 고유함, 바람의 감촉, 그리고 소리가 흔하게 존재한다. 항상 자연을 끌어들이며 자신이 만든 공간을 완성했다. 차

가운 소재에 빛이 들어와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고, 물과 같은 자연물이 인공적 공간을 자연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적 요소인 노출 콘크리트는 단순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이어지고, 이 분위기가 곧 안도 다다오가 되었다.

안도 다다오를 말할 때, 노출 콘크리트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건축가가 공간을 설계할 때도, 이런 노출 콘크리트를 자주 활용하곤 한다. 하지만 자연을 끌어들이는 철학이 부족하면 노출 콘크리트의 차가운 물성만 남아, 공간은 차갑고 매정하게 보이고, 심지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 **Madam Coral**
SH S 1070-Y80R
- **Hare Brown**
SH S 4010-Y30R
- **Drizzle**
SH S 2005-R80B

공간에 자연을 잇다

그가 국내에 건축한 또 다른 작품,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뮤지엄 산은 '산 위'라는 고유의 지형에서 덧대거나 이를 해치지 않고, 원래 장소의 일부인 것처럼 얹혀져 있다. 산세 사이에 빠죽하게 솟아 나온 대신, 안온하게 감싸듯 흐른다. 자연에 녹아드는 '자연스러움'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한국식 건축양식과도 닮았다. 뮤지엄 산을 이루는 주요 소재는 노출 콘크리트. 미니멀리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상징과도 같다. 차가운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공적이고 차가울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은 내부도 외부도 따뜻하다. 이 따뜻함이 안도 다다오적 공간의 감성이다.

공간은 조화에서 답을 찾아냈다. Museum SAN (Space Art Nature)의 이름처럼, 공간-예술-자연이 어우러진 곳이 바로 뮤지엄 산이다. 자연과의 조화, 빛과 물, 하늘, 돌과 콘크리트의 조화에서 느껴지는 평안. 내외에 소재로 쓰인 돌들은 국내에서 채석한 '파주석', '귀래석' 등으로 '우리 돌'이어서 더욱 흔하고 편안하다. 차가운 소재들의 공간이지만, 이 조화가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산'을 담은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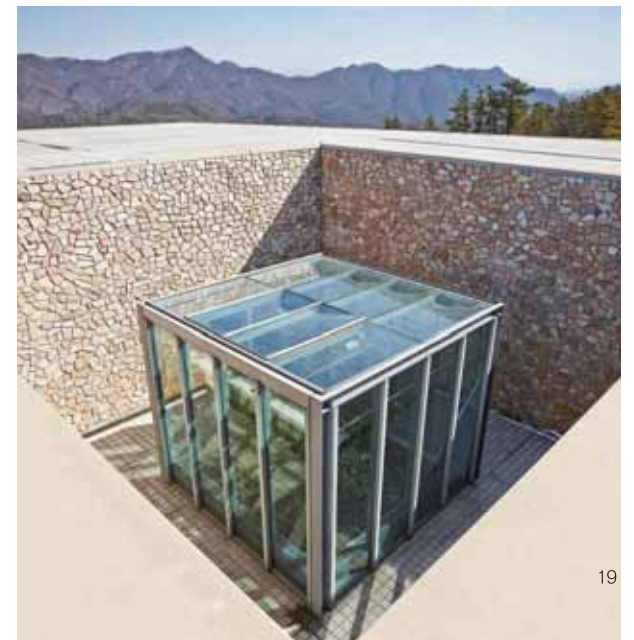
공간을 둘러보자. 여름 한철 붉은 꽃을 피워냈던 패랭이꽃이 가득 펼쳐진 플라워가든을 지나 워터가든과 뮤지엄 본관이 보인다. 본관까지 이어지는 워터가든은 고요한 물의 공간에 건물이 고고히 떠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물에 비추이는 사계절의 풍광은 뮤지엄 산의 또 다

른 볼거리이다. 단풍이 얇은 물결에 양각될 때 워터가든은 뮤지엄 산을 찾은 이들에게 그대로 '가을 산' 그림을 한 폭 선물한다. 2층 규모의 뮤지엄 본관은 '페이퍼갤러리'와 각종 기획전과 상설전이 열리는 '청조갤러리'로 이루어진다. 각 갤러리를 연결하는 복도에는 넓은 창이 연결되어 있다. 원형의 공간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햇빛은 공간을 따스하게 감싸준다. 빛은 물이나 콘크리트만큼이나 안도 다다오에게 중요한 소재. 원형으로 이루어진 공간 역시도 안도 다다오 특유의 기하학적 요소가 녹아있다. 관객들이 부드러운 별에 나른하게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본관 끄트머리에는 스톤가든이 있다. 신라고분의 곡선을 모티브로 하여 설치된 스톤가든의 산책로는 돌과 산 사이에 있는 중간적 공간이다. 스톤가든 산책로에 부는 바람은 뮤지엄의 따스한 공간만큼이나 역세지 않고 선하다. 스톤가든에는 명상관이 있다. 뮤지엄 산의 오묘한 분위기에 '명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관람객의 소감을 반영해 안도 다다오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지은 곳이다.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공간은 온전히 나를 향하며,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초월의 방이다. 외부는 돌,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이 공간의 아치형 천장에 안도 다다오의 특이하게 반을 가르듯 절개해두었다. 그의 대표작 '빛의 교회'가 연상된다.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느끼고, 보이는 풍경을 통해 자연과 이어진 공간임을 상정한 것이다. 본관과 이어지지는 않지만, 스톤가든이 끝나는 곳에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제임스 터렐의 상설 전시관이다. 뮤지엄 산의 철학과 어울리는 빛과 공간의 스페셜리스트인 그의 대표 작품 다섯 가지를 감상할 수 있다. 별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뮤지엄 산 그리고 안도 다다오의 공간 철학은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가치를 보여준다. 실용성, 모더니티, 간소함, 어쩌면 차갑게도 느껴질 공간감이 자연에 얹혀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하고 따뜻하다. 산 속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느끼고 비로소 자연과 자신을 소통한다. 뮤지엄 산은 자연과 교감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을 짓는다, 잇는다.

A
뮤지엄 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033-730-9000



HAY

HAY는 2002년 설립되어, 북유럽디자인이 가장 발전했던 1950~60년대의 디자인인 미니멀리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다. 집 안에 자연스러운 미니멀리즘을 들여놓고 싶다면 HAY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AY Store 이태원점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68
Photographer 임수진(mozzi_su@naver.com)



모던한 세련미가 주조를 이루는 가구에 부드러운 계절감을 담은 패브릭 아이템을 매칭하면 풍성하고 안락한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Natural

지구의 땅과 나무, 흙을 연상하게 하는 톤온톤 컬러의 조화와 나무 패턴의 꽃병이 울가를 유행하는 뉴트럴 얼씨(Neutral Earthy) 인테리어의 핵심 키워드이다.

HAY Kitchen

헤이킪친은 주방을 위한 컬렉션으로 공동 설립자인 Mette Hay와 덴마크 출신 셰프이자 레스토랑 운영자인 Frederik Bille Brahe에 의해 선별된 키친 아이템으로 채워져 있다.



Practicality

강철 소재의 단단함을 부드러움으로 감싼 의자는 내부에서만 아니라 옥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한 가지 가구를 두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디자인한 이 지점이, 바로 HAY의 유연한 철학이자 미니멀리즘의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



Minimalism

미니멀리즘이란 쉽게 말해 '본질은 살리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가장 적합한 것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HAY일 것이다.

FURNITURE & DECO 페인팅을 위한 TIP

현대적인 컬러와 감각을 더한 올가을
유행할 Furniture & Deco 페인팅
디자인에 주목하자.

벽 페인팅과 가구 페인팅 컬러를 통일시키면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침대 헤드의 페인팅만으로도
집 안에 가을을 들일 수 있다.



특별한 키즈룸을 꿈꾼다면
아이의 애착 인형을
페인팅 액자로 만들어 걸어보자.



나뭇결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페인팅은
즉각적인 힐링을 선사한다.



FURNITURE & DECO COLORING IDEA

공간을 통해 일상의 휴식을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바로 나의 공간에 나만의 맞춤 가구를 들여놓는 방법이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는 가구 페인트 컬러를 만나보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Hunter Wellies

헌터 웰리스
SH S 5030-B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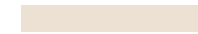
Vintage Pink

빈티지 핑크
SH S 1015-R



Shiny Cream

샤이니 크림
SH S 0603-Y40R



Satin Peach

새틴 피치
SH S 1030-Y70R



Larva Green

라바 그린
SH S 1040-G40Y



Midnight Sea Shore

미드나잇 씨 쇼어
SH S 603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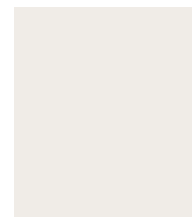
Dim Gray

딤 그레이
SH S 7000-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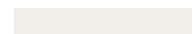
Nimbus Gray

님버스 그레이
SH S 8000-N



Milk White

밀크 화이트
SH S 0300-N



Sage Green

세이지 그린
SH S 3010-B90G



Harbor Gray

하버 그레이
SH S 2002-G50Y



Grand Blue

그랑 블루
SH S 4050-R90B



ENOUGH IS ENOUGH 적당함을 즐기는 삶 하이브로우 타운

하이브로우 이세희 대표

배우 이천희와 그 동생 이세희 대표가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로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인테리어나 캠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며, 지난해 JTBC 효리네민박으로 더욱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서울 이태원 매장을 정리하고 원주로 옮겨, 이제는 원주에 가면 꼭 들러야 할 명소가 되었다. '하이브로우 타운'은 직접 가구를 만드는 공방과 제품을 보여주는 쇼룸, 다양한 아이템을 구경할 수 있는 마켓, 최근 리뉴얼 오픈한 비스트로카페 '하우스트'까지 더해지며, '하이브로우' 브랜드 철학이 담긴 형태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간을 운영하는 이세희 대표를 만나 '하이브로우'만의 특별함과 그들의 가치를 물었다. 입에 착 감기는 브랜드명 '하이브로우' 명칭부터 궁금했다.

하이브로우(HIBROW)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 뜻도 궁금합니다.
처음엔 형이랑 서로 가정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가구를 짜는 정도였습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인들 부탁을 받고 만들어 주기까지 이르렀어요. 선물할 가구에 우리 작품이라는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희(HI)'에 형제를 뜻하는 '브로우(BROW)'를 붙여 '하이브로우(HIBROW)'라고 붙였죠. 캠핑할 때 쓸 수납함과 테이블이 필요해서 만들어본 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공동대표 두 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나요?

형은 제품 디자인 및 홍보 아이디어를 맡고, 저는 자금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과는 반대로 몸 쓰는 일은 형이 더 많이 해요. 저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사실, 형과 저는 가구 만드는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만 1년 정도 걸렸어요.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맞춰나간 이 시간 덕분에 튼튼하면서도 실용적인 '하이브로우'만의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형수님과 아내가 해준 말인데, 둘이 아무 말 없다가도 일 이야기만 나오면 3~4시간을 멈춤 없이 떠든다고 하더라고요. 취향과 시각도 둘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졌고요. 이러면서 '하이브로우'의 스타일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좋은 가구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저희에게 '좋은=적당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들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자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 정신을 이어가려 하기에 실생활에 실용적인 제품들을 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상자들을 이용한 밀크박스, 캐리어박스 제품군 등이 대표적이지요. 우리가 즐기는 취미생활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이, 굳이 따지자면 저희의 제품기획 방향이에요.

공방+소름+마켓+카페 등 건물이 너무 멋있는데, 이곳 원주에 자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방과 서울 가게가 따로 있으니 관리가 어려웠어요. 사실 적자였죠. 더 큰 작업실도 필요했구요. 그래서 형이



발견한, 선박학교 건물이었던 이곳을 보러 왔어요. 건물이나 경치도 워낙 예쁜 데다가, 공간도 널찍하니 좋았습니다. 야외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찾는 강원도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온라인 판매 위주여서 위치적 문제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부지가 넓으니, 우리 콘셉트대로 한번 판을 벌여보자는 생각이 있었죠. 다행히 지인 2명이 운영하는 카페가 자리를 잘 잡아서 손님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찾아와주셨어요. 입소문 덕에 잘 된 거 같아요. 원주 '하이브로우 타운'은 리모델링부터, 잔디 심고 관리하기, 청소, 모두 저희 형제와 직원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온 공간입니다. 그래서 애착도 더 있죠. 이곳 공방에서 저희가 직접 모든 가구의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소름에서는 그 제품을 보여주구요.

삼화페인트의 제품을 사용해보셨나요? 앞으로 삼화페인트와 함께 협업을 해볼 생각은 있나요?

그럼요.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원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다가 강도 면에서도 우수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다른 분야의 브랜드이면서 서로의 방향성이 통하는 브랜드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컬러를 불어넣어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삶을 디자인하는 'Life Canvas'와 '적당함을 즐기는 삶(Enough is Enough)'이라는 저희 슬로건이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긴다' 이 부분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DIY 제품을 더 많이 내보일 생각이 쪽 있어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삼화페인트와 협업을 진행해본다면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하이브로우 목표와 독자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적당함을 즐기는 삶'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쓰는 정신이지만, 그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즐기며 살아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삶, 즐기고자 하는 삶을 스스로 살고 있을 때 비로소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자 모두 일상의 것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해서 모두가 매일을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FURNITURE & DECO 페인팅을 위한 Q & A

아직은 쓰임새가 있고 튼튼한데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결정한 가구나 소품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큰 책장 하나를 페인팅하고 싶은데 페인트양이 가늠이 안 되네요.

보통 작은 책장 등의 소가구는 0.5L, 장롱, 큰 책장 등은 1L 정도 페인트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 정도는 페인팅을 해줘야 원하는 컬러가 나와요. 그리고 작은 가구나 소품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홈스타파스텔 OK PLUS 0.4L 소량 포장 제품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천제품 더클래시 아토프리 멀티, 홈스타파스텔 OK플러스

가구나 소품을 페인팅할 때 젯소 작업을 꼭 해야 하나요?

젯소는 필수는 아니지만, 가구나 소품 페인팅 시에는 젯소를 먼저 페인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젯소는 페인트 접착력과 발색력, 은폐력을 높여주어 페인팅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지속력 또한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페인트가 잘 붙지 않는 유리, 철재, 플라스틱 등에 페인팅 시 젯소를 꼭 칠해주세요.

추천제품 홈스타 젯소

가구를 리폼할 때 사포로 샌딩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포를 사용해야 하나요?

가구들은 기본적으로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젯소를 칠하기 전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주면 페인트 접착력이 높아집니다. 사포의 뒷면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고운 사포, 낮을수록 거친 사포입니다. 일반적으로 180이나 200망 사포를 많이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사포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포 샌딩 시 나뭇결을 따라 사포질을 해야 스크래치가 남지 않습니다.



아이 의자를 페인팅하려고 하는데, 브러시는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25~50mm의 브러시가 적합합니다. 좋은 브러시를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첫째, 모가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윤기가 있을수록 자국이 남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모의 결이 일정하고 모를 잡아 앞뒤로 당겼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이 넓지 않은 작은 가구나 소품을 리폼할 경우 폼 스폰지를 사용하면 페인트 결이 거의 남지 않아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싱크대도 페인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싱크대도 원하는 컬러의 페인팅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첫째, 싱크대의 손잡이를 드릴을 사용해 떼어내고 시트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시트지 위에 페인팅이 가능하지만 들떠있거나 갈라져 있는 시트지는 반드시 제거한 후에 페인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크킹 또는 커버링테이프를 활용하여 싱크대 위쪽과 아래쪽, 바닥을 감싸주는 보양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셸프페인팅 전 밀착력과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 젯소를 칠해주고 젯소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페인팅을 2~3회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자주 닿는 곳이기 때문에 수성 크리어 플러스와 같은 코팅제로 마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제품 더클래시 아토프리 멀티, 홈스타파스텔 OK플러스

페인팅한 의자에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의자를 옮기거나 할 때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커터 칼이나 사포로 울퉁불퉁해진 표면을 고르게 만든 뒤 페인트를 아주 소량 덧칠해주면 됩니다. 페인팅하고 남은 페인트를 소량 보관해 보수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우드 바니쉬를 사용했는데도 누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하죠?

우드 바니쉬는 원목 나무에 바니쉬만을 단독으로 칠하

Home 인테리어도 유행이 빠르게 지나고

그에 따라 유행하는 컬러도 계속 진화한다.

그런데 집에 있는 가구나 데코를 유행에 따라

매번 구매할 수 없다면, 페인팅이 정답이다.

페인팅만으로도 새롭게 태어나는 가구나

데코의 경쾌함을 만나보자.

거나, 수성스테인 마감재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수성페인트 마감재로 사용 후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황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성페인트 마감재로는 수성 크리어 플러스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컬러를 직접 골라보고 싶는데 NCS 950 색견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삼화페인트는 스웨덴의 글로벌 색채전문기업 NCS AB사와 제휴를 통해 자연에서 추출한 950개의 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CS 950 색견본은 삼화페인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모니터, 핸드폰 화면에 따라 컬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컬러는 삼화페인트 대리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원하는 컬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목 가구가 너무 오래되어서 파이고, 보기 싫게 흠집이 났어요. 여기 위에 바로 페인팅해도 될까요?

우선 사포를 이용해 표면처리를 한 다음 나무의 흠집을 메워주는 원목 메꾸미 우드필러로 채워주세요. 헤라 등을 이용해 우드필러를 흠집 난 곳에 바르고 평평하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우드필러가 딱딱하게 마르는데요. 320방 정도의 부드러운 사포로 우드필러 주변을 부드럽게 샌딩해주어야 표면이 말끔한 페인트 리폼이 완성됩니다.

집에 아이가 있어서요.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고 싶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친환경마크입니다. 친환경마크는 페인트를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가 환경부 기준치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인 HB마크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인공화합물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함이 0.10 미만이어야만 최우수 HB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삼화페인트 친환경 제품들은 대부분 친환경인증과 HB마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제품들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추천제품 아이생각 더클래시 아토프리

가구나 소품에 페인팅하고 싶는데 스테인, 수성페인트, 바니쉬까지 종류가 많아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셀프로 가구나 소품을 리폼할 때는 스테인, 수성페인트, 바니쉬, 크리어 등의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는 페인팅할 가구나 소품의 소재,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스테인	
사용 목적	원목 그대로의 결을 살리고 싶을 때
추천 제품	아이생각 수성스테인 -자연스러운 원목 느낌을 살려 줌 -원목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색을 입힐 수 있음
사용 단계	샌딩>스테인>(바니쉬)
다목적 수성 페인트	
사용 목적	가구 위에 완전히 색을 입히고 싶을 때
추천 제품	홈스타파스텔 OK 플러스 -목재, 철재 등 다양한 소재에 사용 가능 -950가지의 NCS 컬러 페인트
사용 단계	샌딩>젯소>페인트
바니쉬	
사용 목적	스테인 페인팅 후 사용하는 투영 코팅제
추천 제품	아이생각 수성 우드 바니쉬 -목재가구 및 목재시설물 내부 상도코팅용 -스크래치에 강함
사용 단계	샌딩>스테인>바니쉬

WOOD PAINT

삼화페인트의 우드 전용 페인트를 한자리에 모아보았다. 페인트마다 기능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 목재용 페인트가 고민이라면 꼭 참고하자.

나무 질감을 그대로 살리는 아이생각 수성스테인

아이생각 수성스테인은 목재의 걸면을 페인트로 완전히 덮지 않고 목재 특유의 질감과 결을 살려 주기 때문에 고급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을 더해주며 다양한 컬러로도 연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목재 내부 깊이 침투해 목재의 내구력을 향상시키고 페인트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으며 건조 속도 또한 빨라 초보자들도 손쉽게 페인팅이 가능하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로하스 인증 획득, 어린이 완구류 안정성 시험에도 합격한 친환경 페인트이다.



실내 목재용 친환경 페인트 아이생각 수성목재

아이생각 수성목재는 친환경 고급 마감재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 내부 목재용 페인트로 나뭇결이 보이지 않게 다양한 컬러 연출이 가능하다. 목재 위에 다양한 컬러 연출이 가능해 방문 및 가구 리폼에 적합하다. 이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과 로하스 인증을 획득하여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신개념 무스형 스테인 스무디스테인

스무디스테인은 국내 최초 무스형 스프레이 방식의 신개념 수성스테인으로 흘러내리거나 얼룩질 걱정이 없어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목재 특유의 질감과 결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장점으로 건조가 빠르고 발림성이 좋아 작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런 기능뿐 아니라 뛰어난 방충성, 우수항 향균성, UV 차단력까지 우수한 도료이다.



DIY가구 필수 마감재 아이생각 수성 우드 바니쉬

아이생각 수성 우드 바니쉬는 목재 코팅용 페인트로 목재 고유의 질감을 향상시키고 외부로부터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도장 후 건조가 빠르며 이지팩 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무광, 반광, 유광으로 원하는 광도에 따른 표면 연출이 가능하며 8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페인트다.

외부 목재시설 착색 및 마감재 월드스테인 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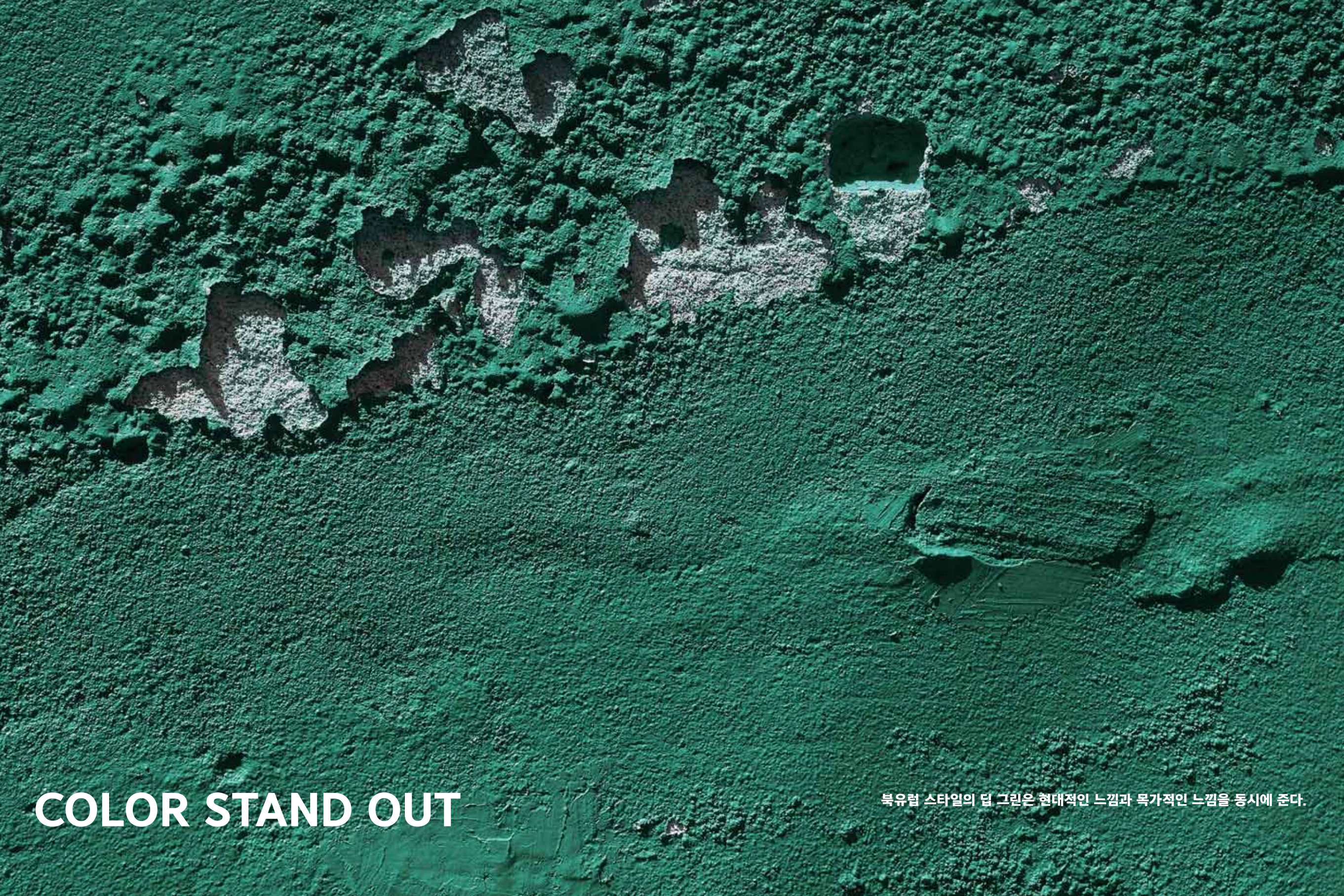
월드스테인 마스터는 물과 비 등 습기에 강하여 물기를 차단하는 기능성 페인트이다. 외부 목재 건물, 각종 목재 시설의 착색 및 마감용 도료로 목재 특유의 질감과 결을 살려주는 오일 스테인 제품이다. 목재의 변색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곰팡이, 해충에도 강하며, 목재 깊숙하게 침투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탁월한 통기성으로 자외선, 햇빛, 바람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해준다.





EMBRACE NATURE

나무가 줄 수 있는 치유의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원목 페인팅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이 된다.



COLOR STAND OUT

북유럽 스타일의 딥 그린은 현대적인 느낌과 목가적인 느낌을 동시에 준다.



삼화페인트가 창립 73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슬로건 “Life Canvas”와 나다움의 컬러를 찾아주는 “시현하다”는 새하얀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우리 삶의 인생 컬러를 찾아준다는 접점이 있다.

김시현 작가 또한 삼화페인트의 “Life Canvas” 슬로건에 깊이 공감한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듯, 나만의 캔버스에 나만의 컬러로 채워간다는 것이 자신이 ‘시현하다’를 통해 말하는 ‘나다움의 표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철학을 공유하기에 작가는 기본 좋게 협업을 진행했다.

이번 콜라보 이벤트는 삼화페인트X시현하다와 함께 나만의 인생컬러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벤트로 시현하다 대표 김시현 작가 촬영권과 삼화페인트 페인팅 키트가 담긴 라이프캔버스 굿즈를 증정했다. 삼화페인트 공식 인스타그램(@samhwa_paint)에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1,000여 명이 참여해 젊은 층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시작으로 삼화페인트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으로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컬러를 찾고, 그 컬러를 공간에도 물들여 삶이 변화하는 경험까지 이어지길 바라본다.

두 #컬러맛집 콜라보
삼화페인트X시현하다

나만의 #인생컬러 찾기 이벤트

What is your Life Canvas Color?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삶’이라는 캔버스.
우리는 그 캔버스에 어떤 컬러를 칠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컬러로 물들이게 될까요?
<삼화페인트X시현하다>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색,
당신의 초상

시현하다 대표 김시현

증명사진이라는 정해진 규격 속에 사람 고유의 색을 담아내는 김시현 작가의 사진 속에는 짙힌 이의 '나다움'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 "Life Canvas"의 철학과도 꼭 닮은 작가의 작업 철학을 만나보자.

'시현하다' 만드는 '색', 그리고 '대화'

1/125초에 불과한 사진이 사실,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김시현 작가는 잘 알고 있다. 찰나일 뿐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그때의 '자기다움'을 펼치고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현하다' 작품의 특징이다. 그래서 '시현하다'는 고정된 규격 속이지만, 고정된 스타일

이 없다. 피사체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며, 해방이다.

다른 사진처럼 연출도 규격도 자유롭지 않은 증명사진. 짜인 틀 속에서 피사체의 최대한을 뽑아내기 위해 김시현 작가가 준비한 무기는 '색'과 '대화'이다. 컬러만큼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도 드물고, 마침 증명사진의 '규칙'에 배경색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스튜디오를 찾는 고객들은 예약할 때 미리, '자신의 색'을 찾아볼 것을 주문받는다. 이 숙제에 대해 고객이 깊이 고민하고 오면 그 다음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초상사진)이 완성된다.

동네 사진관 언니의 사명감

6,000명이 넘는 고객을 찍으며 '대중의 초상' 작업을 해 온 김시현 작가. 지금은 팬클럽도 생길 정도로 유명세



신비한 느낌을 주는 짙은 보라색을 시작으로, 모든 색을 담아내는 블랙, 열정의 레드, 그리고 지금은 모든 빛이 담긴 화이트. 앞으로의 색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색이든 김시현 작가는 그답게 '시현하게' 살 것이다.

중이지만 증명사진을 찍는 사진관을 열겠다는, 다소 독특한 결정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김시현 작가는 휴학을 하고 '시현하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증명사진이라는 틀에서 오히려 더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그의 콘셉트는 고객들에게 틀을 깨는 통쾌함과 나를 찾는 즐거움을 주었다. 대중의 공감을 얻은 스튜디오는 역삼 본점에 이어 '시현하다 레코더즈'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점, 최근 경리단점을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경리단점에 김시현 작가는 내외부는 물론 경리단점 시그니처인 성립작가의 드로잉까지 삼화페인트를 사용했다. 이태원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리단점은 3층 건물로 밖에서 보기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편이다. 삼화페인트의 밀리터리 카키(SH S 5020-G) 컬러로

페인팅된 외벽은 경리단점의 시그니처 컬러가 되었으며, 주변과도 조화롭고 안정감이 있다. 여기에 인물 드로잉으로 유명한 성립 작가의 초상화 드로잉이 그려져 있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부는 화이트 컬러를 배경으로 우드와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식물이 조화되어, 마치 집처럼 안전한 느낌을 준다. 김시현 작가가 직접 안내한 공간이다.

스스로의 색을 선택할 때 이제껏 김시현 작가는 네 가지 색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신비한 느낌을 주는 짙은 보라색을 시작으로, 모든 색을 담아내는 블랙, 열정의 레드, 그리고 지금은 모든 빛이 담긴 화이트. 앞으로의 색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색이든 김시현 작가는 그답게 '시현하게' 살 것이다.





올 가을엔 셉템처럼! 트렌디한 일상을 위한 인테리어

2019 F/W Interior Color Package Urban Residence Style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제안하는 2019 가을겨울 트렌드는 '어반 레지던스(Urban Residence)'를 키워드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조화 속에 감성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톤 다운된 베이지, 그레이, 핑크 컬러와 원목, 메탈, 마블 소재의 조합은 내추럴하면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다소 선명하고 깊은 색조의 블루그린, 그린 컬러와 패브릭, 원목 소재의 조합을 뉴트로 감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에 어울리는 2019 가을겨울 인테리어를 위해 레드 더스트(SH S 3010-R), 로질리(SH S 3030-R20B), 샌드 베이지(SH S 2002-Y50R), 킬 프로스트(SH S 3030-B30G), 샌드 아트(SH S 1015-Y80R), 오븐 샌드(SH S 2010-R) 컬러를 활용한 인테리어 컬러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Color 1

부드럽고 고운 진홍의 질감을 연상시키는 머디(Muddy)한 장미빛 핑크 컬러, 레드 더스트(Red Dust, SH S 3010-R) 컬러는 특히 베이지나 블랙 컬러와 잘 어울린다. 베이지 컬러의 패브릭과 원목 소재가 시각적으로 편안함 느낌을 주고, 블랙에 가까운 다크 그레이 컬러의 철제 소재를 가구 프레임이나 화병 등 소품으로 매치하여 도시적, 현대적 느낌을 강조한다.

Red Dust
SH S 3010-R

Champagne Bronze
SH S 5010-Y50R

Limed Oak
SH S 3020-Y30R

Dim Blue
SH S 6502-B

Color 2

보라빛이 도는 레드 컬러, 로질리(Rosily) 컬러는 그 자체로도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며, 밝은 그레이 컬러를 함께 배색하면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더 강조할 수 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의 원목 가구, 현대식 벽난로 등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면, 커피, 음악, 책이 함께하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Rosily
SH S 3030-R20B

Platinum Gray
SH S 3000-N

Birch Brown
SH S 6010-Y30R

Onyx Black
SH S 9000-N





Color 3 최근 몇 년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은 웨인스 코팅 벽면에는 월그레이 컬러인 샌드 베이지(Sand Beige) 컬러가 특히 잘 어울린다. 원목, 메탈, 마블 소재의 미니멀 디자인의 가구·소품과 그래픽 패턴 등의 요소를 함께 스타일링하면 유럽풍 트렌디한 감성을 표현하기에 좋다.

- Sand Beige**
SH S 2002-Y50R
- Cinnamon**
SH S 5020-Y50R
- Dark Forest**
SH S 7010-G10Y
- Grand Blue**
SH S 4050-R90B

Color 4 웰니스를 위한 그린, 블루그린은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컬러이다. 티ل 프로스트(Teal Frost) 컬러는 블루와 그린의 컬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컬러로 마음의 안정을 주면서도 집중력을 높이기에도 좋은 컬러이다. 머스타드 옐로우(Mustard Yellow), 다크 토프(Dark Taupe) 컬러와의 배색은 차가워진 날씨에도 생동감 있는 일상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Teal Frost**
SH S 3030-B30G
- Desert Sand**
SH S 2020-Y30R
- Mustard Yellow**
SH S 3050-Y10R
- Dark Taupe**
SH S 7005-Y80R





Color 5

다크 그린 컬러인 트로피컬 딥 그린(Tropical Deep Green) 컬러는 옐로우, 브라운 컬러와 함께 앤티크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죽 소재보다는 간결한 디자인의 패브릭 소재 소파를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모던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바닥이나 소품은 밝은 베이지 또는 밝은 그레이 컬러로 선택하면 실내공간이 너무 어두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 Tropical Deep Green**
SH S 6530-G10Y
- Sand Beige**
SH S 2002-Y50R
- Acorn**
SH S 4010-Y50R
- Amber**
SH S 3040-Y40R

Color 6

고요함과 힐링을 위한 공간에는 차분하고 청량한 느낌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오번 샌드(Auburn Sand) 컬러를 페인팅한 후, 쿨 그레이 컬러들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다크 블루 컬러로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화이트, 크림 컬러의 패브릭, 털실 직물을 함께 두면 더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이 완성된다.

- Auburn Sand**
SH S 2010-R
- Pebble Gray**
SH S 1502-Y50R
- Minimal Gray**
SH S 4000-N
- Prussian**
SH S 7020-B



뒤도 옆도 없이 달려온 한길

서울 '대흥페인트' 박성주 대표

45년 경력의 페인트에서는 베테랑이지만, 카메라 앞에만 서면 경직되는 아버지와 천호동 토박이 신세대 아들이 있다. 둘이 뭉쳐 꾸며가는 천호동의 사랑방. 오고 가는 정이 넘치는 '대흥페인트'이다.



박형운 대표와 박성주 대표

힘들 법한데 아들은 별말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등직한 모습만 보인다. “아들이 일 시작하고 3년 됐는데 군말 없이 잘 따라와 줍니다.”
말수 적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한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다음 꿈을 꾸다

대흥페인트는 원래 마포와 천호 두 영업장을 갖춘 사업체였다. 아버지 박형운 대표가 마포 대흥을 정리하고, 천호 대흥만 남겨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현재의 '대흥페인트'가 되었다.

대흥 최고의 자랑은 '근면 성실'이다. 새벽 6시까지 모두 출근해, 오후 8시까지 문을 열어두는 가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보다 이런 부지런함을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했다. 새벽 6시까지 매일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25kg이나 되는 무거운 페인트통을 때로는 건물 옥상까지 걸어서 옮겨야 하는 등 아직 아들에게 강요하기는 미안한 일이기도 했다.

힘들 법한데 아들은 별말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등직한 모습을 보인다. “아들이 일 시작하고 3년 됐는데 군말 없이 잘 따라와 줍니다.”

말수 적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한다.

갓 서른이 된 박성주 대표. 이십 대에 일을 시작하여 가게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흔들림 없이 지금껏 대흥의 앞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럽지는 않아요.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따라와 주니까요. 목표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보다 한참 젊은데 벌써부터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업력 3년이 지나는 박성주 대표는 연매출 10억 원이 꿈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영업을 시도해보고,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페인트업에서 젊은 고객들과 교류 쌓기 등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도하는 신세대 사장님이다. 사실, 45년 경력의 아버지에게 아직 배울 점이 많지만,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영업 방식 등으로 논쟁이 있기도 했다.

“종일 바쁘고 그러다 보면 다들 일도 종종 생기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금세 이해하고 풀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생각하는 게 가끔 다를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아버지 없이는 아직 힘들어요. 특히 업계 특성상 어르신 고객이 많은데 아버지만큼 제가 잘 대처를 못 하는 때도 있어서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45년 경력의 아버지 박형운 대표는 등직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날이 오기까지 아버지가 한 노력도 적지 않음을 아들도 잘 알고 있다. 상경해 친형이 몸담고 있던 울지로 7가 페인트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형제가 천호동에 가게를 차리기도 하고, 마침내 목표였던 ‘삼화페인트 대리점’

“연매출 10억의 꿈도 저보다 부모님을 위해서예요.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혼자서 잘 유지하는 대흥으로 키워갔으면 해요.”

인 대흥으로 독립하기까지, 아버지의 과거는 가족을 위해, 사모의 말대로 ‘뒤도 옆도 없이’ 무작정 내달린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경험해온 무게를 하나씩 체험해가며, 아들도 성장하는 것이 현재의 대흥이다.

동네 사랑방으로

천호동에서 나고 자란 박성주 대표. 덕분에 대흥은 동네의 사랑방이 되고 있다. 오고 가는 행인들 중 태반은 지인이고, 그의 친구, 지인들도 앞을 지날 때 가게를 꼭 들러본다.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인 만큼, 대표의 소중한 사람들이다. 언제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손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꼭 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즐겁고, 또 뭐든 생기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박성주 대표는 동네 사랑방 같은 현재의 대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의 부모님도 맞장구를 치는 영업전략. “아들이 페인트업 2세대,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저희 때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게 참 대견스러워요.” 어머니인 김미순 사모는 아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주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라고 말한다.

아들과 남편 모두에게 김미순 사모는 고마운 마음뿐이다. 장사야 잘되다 안되다 하는 거지만, 건강만큼은 꼭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 처음 마포 대흥을 창업할 때, 사실 아무 지식도 배경도 없는데 ‘삼화페인트’를 믿고 계약을 맺고 온 남편이 김미순 사모는 기가 막혀 입기도 했다고.

다행히 삼화페인트의 제품력이 대표와 사모의 성실함과 조화를 이루어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다. 미웠던 남편을 예뻐할 수 있게 해준 삼화페인트에 김미순 사모는 특별히 고맙다고 전한다. 페인트업을 하면서 박형운 대표나 그의 친형 모두, 창업을

Core Item



조색 시스템 기계
우리집 최고 보물은 바로 이 조색 기계예요. 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이게 없으면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죠. 마포 대흥에서 쓰던 물건과 천호 대흥 것까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가게를 일으키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기계인데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계산기
별거 아닌 계산기이지만, 참 고마운 물건입니다. 이 계산기로 가게 문 닫고 영수증 처리하던 기억과 추억이 쌓여있죠. 계산기로 이어진 인연들이 지금은 소중한 고객들로 계속 찾아주시는답니다.



한다면 ‘삼화페인트’였다. 마포 대흥을 창업하게 된 계기도, 그곳에 삼화페인트 대리점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삼화페인트가 최고라는 인식은 몇 십 년 전부터 페인트업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믿고 의지해준 김미순 사모에게 박형운 대표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평소 말해본 적 없는 속마음을 내비친다. “고맙다”라는 한 마디에 김미순 사모는 눈가가 촉촉해진다. 박성주 대표는 이렇게 뒤도 옆도 없이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남은 목표다. “연매출 10억의 꿈도 저보다 부모님을 위해서예요.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혼자서 잘 유지하는 대흥으로 키워갔으면 해요.” 앞만 보고 달려온 부모님에 대한 그의 마음씨가 의적하다.

나를 태우고 다시 채운다

철인3종경기에 도전하는
이세훈 선임연구원



❶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컬러개발팀에 근무하는 이세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자동차 분야 컬러 디자이너로 현대자동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❷ 철인3종경기를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 군시절 저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막연한 동경으로 철인3종 같은 걸 적어봤죠. 제대 후에 한 번 도전해보자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10년이 훌쩍 지나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자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6년에 처음 대회에 출전하고 했수로 벌써 4년째네요.



❸ 철인3종경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 흔히 말하는 한계, 도전 이런 것보다도, 우선 건강에 최고예요. 재활치료 삼대장이 바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이지 않습니까. 모두 철인3종의 종목들이죠. 또 자연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는 제주도 바다, 너울을 헤치고 가는 동해 등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많아요.

❹ 운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나 좋아진 점이 있다면?

▲ 업무를 하다 보면 퇴근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 고민을 안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운동을 하면서 땀과 함께 머릿

속 고민들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심이 사라지니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또 운동하는 시간 스케줄링이 필수여서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집니다.

❺ 철인3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주신다면?

▲ 우선, 직장인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잘 쪼개고 부지런해야 운동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규칙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새벽이 가장 시간 활용이 좋은 편이죠.

체력이 받쳐주더라도 야외는 다른 환경임을 생각해야 해요. 원래 실내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더라도, 바다나 강은 또 다르거든요. 근처 바다 수영을 경험해보세요. 저는 회사에서 가까운 구봉도 수영을 종종 갑니다.

경기전략도 잘 짜야 해요. 자기 체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 종목 중 자기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가 무어냐에 따라 체력 안배를 미리 짜두고, 전체 코스를 시뮬레이션해 봐야죠.

마지막으로 정신력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운동은 정신력이 아니라 마일리지예요. 내가 운동으로 쌓은 마일리지만큼 고통이 덜 해요. 대회에서 고통을 덜 느끼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대회 전날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고요. 운동 도중에 식음할 수 있는 보충제를 챙기는 것과 자전거, 수영수트의 정비도 필수입니다. 모두 스스로 챙길 능력을 갖추어야겠죠.

❻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요?

▲ 첫 대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몇백 명이 동시에 입수하는데 그 긴장감과 에너지에 엄청나게 위축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수영장과 바다는 다릅니다. 갭 갭한 물속에, 옆에서 팔로 치고, 뒤에서 덮치고, 긴장해서 호흡도 안 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전거 코스에서는 앞 사람만 따라가다 그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 정도 길을 헤맸어요. 결국 컷오프(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피니시라인에 들어오는 것)를 당했는데 첫 대회여서인지 무지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때의 그 희열감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❼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궁금합니다.

▲ 첫 번째는 두 아들과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같이 운동을 해서 '가족 철인'이 되면 좋겠

지만, 개인의 자유로 남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먹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호회에는 70대 어르신도 계십니다. 저도 못 해도 80대까지는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요.

❶ <Samhwa & People>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직장인들은 보통 시간에 쫓겨 살지만, 주위 환경을 잘만 이용하면 인생의 활력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철인대회에 가장 많이 참가하는 연령대는 40~50대에요. 힘들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제게 꼭 연락주세요!





**펫서울&카하엑스포 2019
반려동물을 위한
펫테리어 제안**

삼화페인트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전시회인 '펫서울&카하엑스포 2019'에 참가했다. 삼화페인트는 참가 부스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편안한 우리 집 인테리어'를 주제로 새로운 '펫테리어'를 제시했다. '펫테리어'란 펫(Pe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까지 생각한 인테리어를 뜻하는 말이다.

사실, 반려동물의 피부는 사람보다 연약한 편. 개와 고양이는 사람보다 표피층 두께가 얇아, 연약하고 세균감염에도 취약하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소비자에게 친환경 페인트로 공간을 꾸며볼 것을 제안했다. 국내 페인트 업계 최초로 한국과 미국의 아토피 알러지케어 인증을 동시에 받으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더클래시 아토피프리'와 실내 환경 주요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를 흡착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항균과 항곰팡이 성능을 갖고 있는 '아이생각 에코월'과 '아이생각 리프레쉬'는 펫테리어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제품. 삼화페인트는 박람회를 통

해 반려인들에게 펫테리어를 위해 필요한 제품을 함께 추천했다. 또한, 천만 반려인들을 위해 '펫러브 컬러팔레트'라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반려동물 시각에 관한 여러 연구 자료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만든 '펫러브 컬러팔레트'는 삼화-NCS 950 컬러션에서 반려동물이 볼 수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 계열 중 강아지와 고양이가 선호하는 컬러를 골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공간을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컬러를 제안했다.

새로운 '펫테리어'를 제안하며, 삼화페인트는 박람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반려인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개인 SNS에 삼화페인트 부스에서 반려견의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해 올리는 '펫샷 콘테스트'의 반응이 뜨거웠다.

반려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관련 시장과 소비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지금, '펫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삼화페인트 부스를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도 더욱 뜨거웠다.





전시회로 만나는 ‘LIFE CANVAS’

삼화페인트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창사 73주년을 기념하며 새롭게 선보인 슬로건 ‘Life Canvas’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 그 개최식 현장을 찾았다.

사내 ‘Life Canvas 展’ 개최식

8월 26일 오후 4시, ‘Life Canvas’ 사내 전시의 개최식이 안산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삼화페인트가 새롭게 선보인 슬로건 라이프 캔버스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라이프 캔버스는 창립 73주년을 기념해 삼화페인트가 발표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이자 슬로건이다. 새하얀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삼화페인트의 컬러가 고객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삶의 캔버스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이자 다짐이다. 임직원들이 라이프 캔버스에 담긴 새로운 시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감성을 나누기 위해 속속 모여들었다. 오진수 대표이사는 창의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라이프 캔버스를 통해 더욱 앞서가는 기업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정의



Life Canvas

각하는 ‘라이프 캔버스에 대한 의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가 생각한 라이프 캔버스는 도전이다’, ‘희망이다’, ‘변화이다’, ‘경험이다’ 등등 각각각색의 생각이 통통 튀어 오른다. 계단 중간에는 하얀 액자 캔버스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컬러로 채우는 페인팅 행사가 진행됐다.

라이프 캔버스 전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캐리커처 액자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된 액자는 사전 이벤트로 진행된 임직원 캐리커처로, 삶이라는 도화지에 각자의 컬러를 채우듯이 본인이 직접 고른 배경색을 채워서 완성했다. 미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캐리커처 이벤트가 진행됐다. 다른 한편에선 사전 응모를 통해 모아진 삼화페인트 임직원이 생각하는 라이프 캔버스에 대한 생각을 담은 라이프 캔버스 트리거가 전시되었다.

라이프 캔버스는 새하얀 캔버스에 다양한 그림을 채우듯 삼화페인트의 컬러가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를 고객과 함께 그려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객의 삶과 밀접한 건축, 자동차, 모바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컬러 개발 사례와 팸팸을 위한 인테리어 제안,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미래 컬러 트렌드 등이 전시되었다.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벽화는 칠한다고 하지 않고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는 예술의 영역이고 우리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좀 더 창의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희망합니다”라는 인사말에 이어 떡 커팅식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개최식은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시회장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장 운영

2층 전시장으로 가는 계단마다 삼화페인트 임직원이 생



‘EASY-SALES’와 함께 매출 신장도 ‘EASY’ 하게!

에스엠투네트웍스가 삼화페인트 대리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판매관리시스템이 요즘 삼화페인트 대리점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월 삼화페인트가 주최한 대리점 세미나에 소개된 후, 대리점주들의 지속적인 러브콜이 있었다.

정확하고 빠른 계산과 재고 관리 기능, 카드 결제 취소와 같은 편리한 기능으로 전국 삼화페인트 대리점은 더욱 쉬운 판매 시스템과 매장·재고·매출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판매관리시스템을 사용 중인 삼화페인트 제주 한양 페인트 백화점 대리점주를 만나, ‘Easy-Sales’가 영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 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주 한양 페인트 백화점 대리점주 Q&A

‘Easy-Sales’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처음 시스템이 소개되었다는 대리점 세미나에는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지금은 참으로 후회가 되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하

루라도 빨리 설치를 했을 테니 말이죠. 저희가 일이 많아 판매관리시스템이 필요해서 따로 업체에 의뢰를 해보았을 정도로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개발비가 비싸 주저하고 있을 때 마침 삼화페인트에서 ‘Easy-Sales’ 판매관리시스템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Easy-Sales’ 실제로 써보니 어떠셨나요.

처음 본사에서 온 직원이 이런저런 좋은 기능이 있다며 설명을 하는데, 처음 본 프로그램이라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 직원이 이거 설치하면 편해진다고 꼭 써보시면 알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지만, 저는 장비도 사야 하고 매월 얼마씩 내야 한다가 고민이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앞으로는 이거 꼭 써야 한다고 단호하게 진행을 해서 처음에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단가 입력이 꼭 필요하며 엑셀 파일을 보내주었는데, 대리점마다 판매가격이 달라서 단가는 꼭 직접 입력해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5년간 우리가 사용했던 품목이라며 엑셀을 주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품목이 1,300개가 넘고, 부자재도 추가해보니 900개나 되었습니다. 단가가 기억나지 않는 품목도 꽤 많아서 입력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렸어요.

단가를 입력한 파일을 본사 직원에게 보내주었고, 다음 날 품목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시험 삼아 바코드를 읽어보니, 신기하게도 금액이 바로 뜨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에 익숙해서인지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만져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졌어요.

즐거찾기를 내 맘대로 수정할 수 있어서 자주 나가는 품목은 찾기 쉬운 곳에 두었고, 키보드 없이도 바로 등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예전에 계산기 몇 번씩 두드린 것과 품목 적어주느라 손목 아팠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신세계가 따로 없어요. 또, 카드 결제를 취소할 때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승인내역 조회가 되어서 카드만 있으면 바로 취소가 되니 너무 편해요. 처음에는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 이보다 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나에게 Easy-Sales란?

저희 직원들도 입을 모아 좋아했다고 해요.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은 본사 직원과 함께 상의하며 하나씩 수정을 하고 있어요. 곧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처음에 매달 내는 사용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사용료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랄까, 버스 타고 다니다가 택시 타는 느낌 정도라고 할까요. 이제는 ‘Easy-Sales’ 없이는 안될 것 같아요.

‘Easy-Sales’를 실제 도입해 사용 중인 대리점주들의 평은 하나같이 매우 좋은 편이다. 수기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쉬우며 정확하기까지 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어렵지 않은 시스템 인터페이스 때문에 누구든 금세 배울 수 있다는 점 등도 강점이다. 사용료가 있어서 머뭇거리던 대리점주들도 일단 사용을 해본 후에는 하나같이 대만족이라는 평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대리점주들이 전하는 부족한 점들도 바로 접수하여 업그레이드에 반영하고 있다. ‘Easy-Sales’ 덕에 한결 더 간편하고 정확해진 매출 관리는 삼화페인트 대리점들의 영업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1

시각장애 학생들 위한 구름다리 도색 프로젝트



서울 종로구에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다. 바로, 시각장애아동이 공부하는 서울맹학교이다. 삼화페인트와 하트-하트 재단이 서울맹학교에 뜻있는 선물을 제공했다. 바로, 삼화페인트와 하트하트 재단이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CSR)인 'Invisible to visible' 프로젝트를 통한 교내 구름다리 도색 작업이다. 도색한 지 20년이 되어 노후화된 구름다리의 색상이 어둡고 칙칙해, 시력 저하가 우려되었던 상황.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인 만

큼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삼화페인트는 도색작업 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컬러와 패턴을 조사했다. 사용할 학생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컬러와 디자인을 구름다리에 입혀주고 싶었던 것.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름다리는 편안한 느낌의 노랑연두색 톤온톤 배색으로 컬러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아이들은 학교가 더 밝아 지니 좋라며 해맑은 웃음을 전했다.

02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경기도미술관 전시회 페인트 후원



삼화페인트는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의 경기도미술관과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안 가오승미술관과의 교류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는 작가 19명이 만들어낸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주'라는 공통의 주제에 맞게, 인간과 동물, 식물, 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주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회는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공존의 길을 생각해 했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들의 특징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작품에 걸맞은 컬러를 선택하여 벽면에 페인트를 도장했다. 프레시 크림(SH S 0505-Y20R), 록키 그레이(SH S 7500-N)를 비롯해 총 6종의 컬러를 사용해, 작품의 주제를 더욱 강조했다. '월드퍼티'와 '아이생각 수성내부 프로' 등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했다.

03

필리핀 '바기오 데이케어 센터' 봉사활동에 친환경 페인트 지원



삼화페인트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를 하는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계획 중인 현지 구호 활동에 삼화페인트 친환경 페인트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내용.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 '바기오 데이케어 센터'가 노후화되어 새단장에 페인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뜻깊은 사업에 삼화페인트는 동참을 결정하여, '월드퍼티'와 '아이생각 수성외부 프로', '아이생각 수성내부 프로', '칠판페인트'를 비롯해, 총 14종 176L의 도료를 제공하였다.

1970년대 지어져, 낡고 지저분한 모습에 실내 곳곳엔 곰팡이마저 슬어 있던 공간이 자원봉사자들의 5일간 흘린 비지땀에 보답하듯, 밝고 화사하게 변신했다. 아이보리와 화이트 컬러로 톤을 맞춘 내부 벽면에 알록달록한 책상들이 포인트를 주며, 한층 아기자기하며 활기찬 공간으로 센터는 거듭났다. 특히, 기존 우드톤의 책상은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아이들을 배려해 선정한 다양한 색상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 후 기뻐하는 센터 아이들의 미소에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자원봉사자들 모두는 한껏 행복해했다.

04

2019년 상반기 글로벌 법인장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8~20일 2019년 상반기 글로벌 법인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열리며, 주요 임원과 해외법인장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5월 삼화VH 신공장이 완공된 것을 기념하고자 베트남에서 진행되었으며, 삼화페인트 해외법인들의 상반기 업황에 대한 평가 및 하반기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및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삼화페인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법인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05

휴대전화·컴퓨터 화면 보안필름용 UV도료 개발



삼화페인트가 화면 보안필름용 UV도료를 개발했다. UV도료는 자연건조나 열건조가 아닌 자외선(UV)에 의해 건조하는 도료로, 원료의 종류 및 투입 비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원료 조합 능력은 제조사의 기술 수준과 직결된다.

삼화페인트가 개발한 보안필름용 UV도료는 패턴링(Patterning)을 준 고부가가치 도료로 투명한 UV도료에 정밀한 패턴 성형 작업을 한 후 블랙 UV도료로 패턴을 채우고 면 상태를 고르게 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심한 기술을 요한다.

패턴의 종류 및 깊이에 따라서 옆에서 봤을 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빛에 의한 반사가 적어 눈이 피로하지 않다. 또한 용제(Solvent)를 사용하지 않은 무용제 타입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친환경 도료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보안필름용 UV도료는 현재 각종 휴대전화 및 태블릿, 데스크톱 모니터용 필름에 적용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다.

06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 페인트 후원



유년시절 많은 이들의 친구였던 말괄량이 소녀, 빨강머리 앤이 돌아왔다. 갤러리아포레 MMA 서울전시에서 개최된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을 통해, 앤의 하루하루에 울고 웃었던 많은 관객들이 옛날 추억을 돌이켜보았다.

전시회에서는 마담롤리나, 노보듀스, 안소현, 손민희 등 국내외 유명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다양한 매력의 빨강머리 앤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관객 스스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종이에 쓰고 지우며, 지우면서 나오는 지우개 가루를 저울에 재고, 이를 버리는 의

식을 통해 내 콤플렉스가 줄어든다는 통쾌함을 선물했다.

이번 전시의 컬러풀한 벽과 바닥 또한 남달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바로, 삼화페인트의 후원으로 그린 테라스(SH S 3020-G10Y), 베이비 코랄(SH S 2010-Y70R), 다크 사파이어(SH S 7020-R90B) 등 다양한 삼화페인트의 컬러들이 도색에 쓰인 것이다. 삼화페인트는 전시장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을 위해 친환경 페인트 '더클래시 아토프리'를 제공했다. 또한, 삼화페인트 SNS를 통해 티켓 증정과 전시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07

제주 한양 페인트 백화점 CF 촬영



제주도의 삼화페인트 대리점인 제주 한양 페인트 백화점이 제주지역 방송광고를 위해, TV CF를 제작하였다. 경기둔화에 이은 건설경기까지 불황이지만, 어려울수록 광고를 통해 삼화페인트의 장점을 알려 이 시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로 광고가 진행되었다.

광고 영상은 '제주의 아름다운 색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되었다. 제주 한양 페인트 백화점의 넓은 매장 모습과 페인트 전문가인 대리점주를 배경으로 수십 년간 제주의 색을 이어온 이들의 모습을 어필하였다.

실제로 제주 한양 페인트 백화점은 오랜 세월 삼화페인트만을 취급해온 삼화페인트 전문점이다. 삼화페인트의 건축용 제품과 중방식용 제품을 전문 취급하며, 이외의 모든 제품도 취급하고 있다. 제주 한양 페인트 백화점은 제주 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매장이 있다.

08

삼화페인트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



일산 킨텍스 1전시장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19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 삼화페인트가 참가했다.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재난대비 건축재, 건설 현장 안전, 스마트 건설 기술 등 건설·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박람회이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재난방지도료와 생활안전도료, 친환경 페인트를 소개했다. '플래임체크', '뉴방화라카200', '에포코트 난연라이닝', '인플러스 라돈가스', '아이생각 리프래쉬' 등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들은 삼화페인트 기술력의 결정체. 안전을 위해 재난방

지도료 기술 개발에 힘쓴 삼화페인트의 기능성 페인트들이다. 특히, 삼화페인트의 내화도료는 업계에서 이미 유명하다. 인천공항, 제주공항, 이케아 매장,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숙소 등에 시공되어 그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기도 했다.

삼화페인트는 박람회 부스를 통해 방문 및 상담한 고객을 위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삼화페인트만의 재난방지도료 기술력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 Event

독자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리서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아래 설문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Samhwa & People>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1. 2019년 새로워진 <Samhwa & People>은 재밌으셨나요?

- ① 아주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2. 디자인과 종이, 판형(책 사이즈)이 2018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어떠셨나요?

- ① 아주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3. 가장 관심있게 읽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회사 소식(뉴스, 신제품 등)
- ② 구성원들과 대리점 소식
- ③ 생활 및 문화 정보(트렌드 및 라이프스타일 칼럼 등)
- ④ 인테리어 및 컬러 정보

4. 좀 더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 ① 회사 소식(뉴스, 신제품 등)
- ② 구성원들과 대리점 소식
- ③ 생활 및 문화 정보(트렌드 및 라이프스타일 칼럼 등)
- ④ 인테리어 및 컬러 정보
- ⑤ 기타()

5. 새로워진 <Samhwa & People>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보내주세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꼭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응모해주세요.
응모는 12월 27일까지, 당첨자는 개별 통보드립니다.
응모 메일 : speople@samhwa.com



Samhwa & People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Not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publisher.